

Vol.21

2014 Summer

<http://www.em21c.com>

희망 실천



EM **실천**
Empowerment Society

Summer Camp

여름 캠프



희망실천

2014 Vol. 21. Summer

발행일 2014년 7월 4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1002호
전 화 02-875-9744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편집디자인 · 인쇄 EM실천



표지설명

EM실천 인쇄실 직원들이 여름호의 표지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I 희망실천

- 04 지역사회로의 복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_ 꿈꾸는집 원장 최지영
- 06 1530-1 청룡동 편지 _ 한국정신장애인지원생활센터 대표 김락우
- 08 우수프로그램 _ 자존감향상프로그램 같이감의 가치감
- 10 동아리 활동 (탁구, 등산동아리)
- 12 가족모임 희망회 '거주시설 투어를 통한 미래실계'
- 14 여름캠프 '행복충전 힐링캠프'
- 18 EM실천 종사자 워크샵
- 20 '일하는 행복' 조용철주임의 작업일지
- 22 숨씨자랑 '특급칭찬이야'
- 24 따뜻한 말 한마디
- 25 신간도서안내 '발달장애인복지론'

II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소식

- 26 법인교육사업(신규직원, 중간관리자교육)
- 28 임시이사회
- 30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소식

III EM실천 NEWS

- 32 NEWS
- 34 작은 나눔을 통한 희망실천

여는글 1

지역사회로의 복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꿈꾸는 집'

4
+
5

글_꿈꾸는집 원장 최지영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넘실대는 바다와 푸른 하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는 주거제공시설 '꿈꾸는집'에서 7명의 여성정신장애인과 생활하고 있는 최지영 입니다. '희망실천'소식지를 통해 EM실천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거제공시설은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서울에는 59개의 주거제공시설이 있습니다. 구조는 가정집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2명의 사회복지사가 10명 미만의 정신장애인과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약물증상관리등 3년동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꿈꾸는집'은 2005년 정부지원 다가구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여성정신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 후 2014년 현재까지 퇴소한 회원은 32명으로 집으로 귀가 한 회원이 9명, 타 시설로 재입소한 회원이 6명, 지역사회로 독립한 회원이 17명으로 퇴소회원의 절반이 지역사회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독립주거시설

‘꿈꾸는집’에서 지역사회로 독립한 회원들은 대부분 SH공사,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전세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회원 중 일부는 몸이 아플 때, 집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 정신장애로 인한 증상의 어려움에 앞서 홀로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3년이라는 입주기간의 제한과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거제공시설 이외에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이며, 다양한 주거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 대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월부터 상도동에 운영되고 있는 독립형공동생활가정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은 LH공사의 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된 주택으로 2013년 신축된 빌라에 ‘꿈꾸는집’ 회원 2명과 지역사회거주 회원 1명이 지난 3월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홀로 살면서 겪는 외로움, 증상관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독립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세 분이 함께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며 지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마음을 모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은 기존 주거제공시설의 열악한 거주 환경과 입주기간 제한에서 벗어나 1인 1실을 사용하여 최대한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존 주거제공시설보다 입주기간을 길게 확보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현재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은 설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에 장기재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80% 이상은 거주할 집이 있으면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주거제공시설은 훈련형 시설로 이용기간 3년 후 독립적으로 거주할 주거공간이 부족합니다. 훈련과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주거제공시설에서 생활훈련과 사회기술훈련을 통해 독립을 준비하고, 훈련이후 사회복귀와 취업과정에 있는 독립적인 거주환경이 필요한 분들은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또는 ‘독립형 공동생활가정’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BM실천 가족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벌써 시작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가 바라는 소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두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거실

꿈꾸는 집 전경



6
+
7

여는글 2

1530-1 청룡동 편지

글_한국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대표 김락우

EM실천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김락우입니다.

얼마 전에 한 동료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친구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며 어떤 친구는 비탄에 겨워 한 바탕 욕도 했습니다. 친구의 욕설이라도 동료가 들을 수 있다면 좋으려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의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됐으니까요.

그는 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친구들 각자는 고인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미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동료는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먼저 분리됐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저를 포함한 동료 등 누구도 그의 심각한 마음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어떤 연유가 됐든 그와 주변의 우리들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때,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분리된 상태였던 겁니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던 2000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그 뒤로 3년에 걸쳐 재발하면서 증상이 심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당시 저 자신을 살아있는 육신이지만 혼령으로서 떠도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환청이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산 사람의 세상과 죽은 자의 세계가 겹쳐 있는데 저만 의식이 깨인 상태'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일하던 매장, 우리 집, 동네, 거리 등 공간 그 자

체는 동일했지만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혼령, 좀비, 산 사람이 섞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저를 잡아서 처단 하겠다며 추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이(환청) 있었지요. 그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욕설과 악담을 쉽게 제게 퍼부었습니다. 망상·환시·환촉·환후까지 심했으므로 단 1분 1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각의 중심에 놓인 채 저승 속에서 의식만 깨어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생각(인식)이 그 당시는 사망한 상태였던 겁니다. 발병과 재발기간 동안 몇 번이나 현실에 대한 의식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아직까지 남은 자의 입장에서 있습니다. 일상 중에 틈틈이 즐겁고도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말입니다. 2004년에 마지막으로 폐쇄병동을 퇴원한 뒤 지금까지 심각한 재발은 없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점.
- 둘째, 타인을 통해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로 다시 나누려고 노력하는 점.
- 셋째, 사랑을 나누려는 것이 사회활동으로 이어져 타인과의 관계망이 다져진 점.
- 넷째, 공고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 지지와 사랑을 받음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점.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해 왔지만 언제나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과 함께 고립된 생활을 했었지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었지요. 현실이 잿빛으로 느껴져 음울했고, 밝은 앞날을 상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손을 내밀기만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저에게 정신분열증은 새로운 삶을 사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비정한 사람들만 모인 곳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2001년 1월 노숙인처럼 며칠 씩 길에서 방황할 때 대가없이 저를 도와 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먹거리, 잠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길에서 동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께 받았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자는 생각으로 주변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생활의 영향일까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자존감도 무척 향상됐습니다. 나타난 결과로만 봐도 인간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삶의 찌그러진 여러 부분들이 펴진 겁니다.

주변사람들을 향하여 작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제 사회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관심의 주 대상은 2004년 보건소 동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한울센터, 당사자 자조모임,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당사자 문화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한국정신장애연대, 당사자 친선모임, 정신보건법바로세우기 공대위 등으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얼핏 보기에 사회활동의 범위가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할이 확대된 것이 저의 삶을 지탱하는 부분은 작습니다. 이런 활동의 과정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또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유대를 맺고 있는 점이 저의 삶에 큰 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쇄병동 퇴원 후 이제까지 여러 차례 자취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정신장애인이지만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지지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제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도 하므로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제 사회활동의 시작은 동료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었습니니다. 정신분열병에 걸리기 전에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지 일을 할 뿐이고 주변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와 제 주변 동료들은 EM실천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옛 EM실천 자리인 것만 봐도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닌 셈입니다. 앞으로는 EM의 동료들과도 함께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닌 동료입니다."



가치감UP 소속감UP 자존감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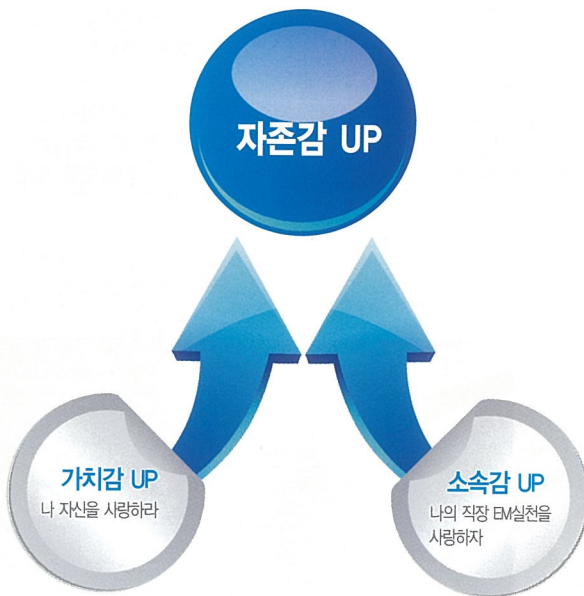
‘자존감향상프로그램 같이감의 가치감’

글_사업지원팀 대리 박수현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

노래 제목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약하면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전전긍긍 살아가게 되며, 열등감이 심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기 어렵게 됩니다.

8
+
9



우리 이용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은 없을까?
우리 이용장애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지?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항상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보이던 우리 이용장애인분들을 떠올리며, '자존감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명 '같이감의 가치감'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다소 서툰 우리 이용장애인분들이 나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같이감(공동의식)의 가치감을 깨우칠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11시, 총 1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가치감 향상을 위한 나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법(마인드맵 그리기, 나의 증상 점검하기, 나에 대해 표현하기 등)과 자신이 속한 직장(BM실천)에 대해 이해하며,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나와 타인의 소중함을 아는 시간.
'같이감의 가치감' 프로그램을 통해 8명의
구성원 모두 자존감을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수현

도움이 가장

'대표적 보통 인간 허재혁'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걸 원가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같이하는 가치관을 참여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은 '나 자체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닉부이치라고 래어 날 때부터 한팔 한 다리가 없어서 어렸을 때 자살 시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 후부터 닉부이치는 행복의 전도사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없는 아내와 자식까지 낳은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내가 마음을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구나' EM실천에 와서 느낀 건 나 말고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선생님들도 잘 배려해주시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이 글로 나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강인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행복한' 장정임입니다.

유아기 때인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건강한 자기애가 형성되지 않아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존감(자신의 가치관과 자신감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존감을 형성시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중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일주일 동안의 나 자신을 칭찬해 주기'였다. '정말 사랑해, 업무 중 떨림 증상이 왔는데 잘 이겨내고 참았구나. 두고했어. 처음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며, 내면화시킴으로써 자기 위로의 기능이 되었다. 매 회기 때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한다.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는 '가치관UP, 도둑잡 UP 뿐만 아니라 자존감UP'까지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 모습 자존감 높인다.

나 감정에 인분들이 등의식의

타였으며 마인드맵 기 등과 회의 이 상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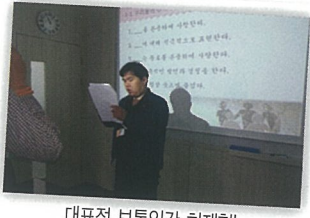
8명의 계기가



나를 표현하는 명찰



주대 있는 사나이 김혁수! 명찰을 소개해요!



대표적 보통인간 허재혁! 우리들의 선서 낭독!



손에 손잡고~ 동료 칭찬하기



나는 누구일까? 프로그램 중



소나무처럼 맑은 손선애님의 마인드맵 발표시간!



EM실천 신문품평회 1



EM실천 신문품평회 2



EM실천 신문품평회 3



EM소식 기자단이 되어



재우야 사랑해 일주일동안 최선을 다했어!



칭찬합니다.

탁구 동아리 '스매싱'

글_ 사업지원팀 김기호



무엇을 하든지 부담이 없는 매월 4째주 금요일 저녁, 바쁜 업무를 마무리하고 하나둘씩 한 자리에 모여, 누구 빠진 사람은 없는지 살펴본다. 하나, 둘, 셋...어둡! 모두 모이면 하하호호 웃으며 건물을 나선다. 가는 길에 맛있는 저녁식사로 지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열심히 버스정류장을 향해 걸어 간다. 모두가 즐거운 얼굴로 퇴근하는 저녁시간. 북적북적한 버스를 타고 10여분을 달린다. 버스에 내려 골목길을 잠시 걸어 도착한 동아리의 활동장소인 가산탁구교실. 어둡고 작은 입구와 달리, 반갑게 맞아 주시는 사장님과 가끔 사장님이 없어도 이웃처럼 맞아주는 탁구장 회원들이 있다.

2개의 테이블을 잡고 시작되는 박진감 넘치는 탁구 경기!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서로의 몸짓과 표정을 보며 즐거운 웃음을 보이며 탁구를 친다. 조용하던 이성우씨도 웃음을 지으며 웨이크로 장난도 치고,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박동진주임과의 경기로 역전, 재역전의 긴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탁구 고수들의 여유로움과 1박2일의 저질탁구 저리나라 하는 예측불허의 흥미진진함을 넘나드는 재미도 있다.

탁구를 치며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함께 즐길 수 있고,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아이들처럼 공 하나 튕겨가는 모양만으로도 저절로 웃음이 나는 시간. 탁구동아리를 통하여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서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이다.

매월 말 4번째 금요일 저녁 6시. 나는 오늘도 그 날을 기다리며, 또 누구와 게임을 해볼까, 누구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다.



등산
동아리

'올라'

글_ 사업지원팀 장원석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이른 아침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힘든 산을 함께 오르는 것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운동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등산동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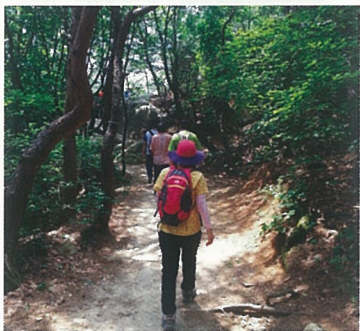
처음엔 '등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면 '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등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여 원하는 등산코스과 건강상태를 생각해서 구성하게 되었다.

등산동아리 '올라'에 EM실천의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등산 동아리를 신청하여 다소 놀랐다.

'올라'의 회원을 소개하자면 이지영님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같이 하여서 많은 놀라움을 주신 분이다. 성격이 차분한 소유자인데 같이 등산 다니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놀라움을 주었다.

(암벽등산도 가능하실 정도의 실력의 소유자)

김민석님은 등산을 워낙 좋아해 모든 산을 섭렵하고 싶어하며, 광철 주임님의 경우에도 많은 산을 가보고 싶고, 도시 근교를 벗어나고



싫어한다. 광재민님은 거친 사나이(의리~)이지만 등산 중에 이야기 해보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허재혁님은 처음엔 같이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차분하게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한 번도 참석 못한 김용일님! 꼭 다음달에는 함께 해요!

이렇게 6명과 함께 관악산, 안산, 아차산을 등산하였다.

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지 행동으로 실천해보지 못한 여러분!

산의 코스도 직접 선택하고, 일정도 참여자들 간의 조율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등산동아리!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산의 정기를 함께 받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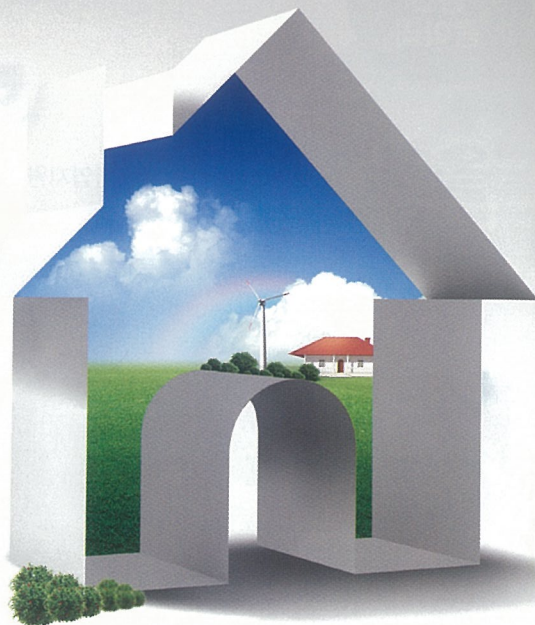


가족회

EM실천 가족모임 희망회
‘거주시설 투어를
통한 미래설계’

12
+
13

글 EM실천 사무국장 박미선



2014년 EM실천 가족모임은 좀 더 특별하게 시작했다. EM실천에 입사한지 10년이 넘는 나는 20대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EM실천의 이용장애인들 또한 그러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사회의 험난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용장애인들 또한 몰라보게 늙어간다는 사실이다.

EM실천의 이웃시설에는 꿈꾸는집과 새로돌는집, 리커버리하우스, 엘림주거시설, 가득한집등의 주거시설들이 있다. 주거시설은 집이 없는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독립주거를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한계가 있고 가정에서도 특별한 독립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 가족모임은 주거시설 투어와 당사자 활동가를 통한 당사자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거주시설투어

01

먼저 여성장애인주거시설인 꿈꾸는 집을 방문했다. 꿈꾸는집을 방문한 가족들은 높은 언덕에 위치에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넓고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독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경제활동도 어려운 보호자들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부모사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우리 가족들은 다시 한번 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이용장애인들도 가정에서의 독립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여 가족들간의 소통을 통해 논의되었고 실제 독립주거한 그룹홈(3명의 정신장애인이 독립하여 생활중인 주택)을 방문한후 준비된 이용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삶을 보며 부러움과 다짐을 하였다.



당사자활동을 통한 가족교육

02

정신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대표이자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김락우 대표가 사회참여와 가족의 역할들에 대해 강의를 진행되었다. 김락우 대표는 동료상담가, 정신장애인 인권교육강사이며 현재 정신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김락우대표의 발병과 증상, 그로 인해 자신의 일상들을 들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크게 공감했다. 짧은 교육의 시간이 아쉬워 다음기회를 약속하며 교육을 마쳤다.



가족회의 '임원선출'

03

2009년 EM실천이 가산동으로 이전하며 독립적인 가족모임을 진행하고 여러 가족들이 바쁜일상에도 가족모임 희망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모임의 구성원은 부모에서 형제 및 친인척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족모임의 중심이 되어줄 가족이 EM실천에 필요했다. 이에 2014년 희망회 가족회의 임원선출이 있었고 오래동안 총무역할을 수행했던 이지영님의 어머니와 홍정기님의 형수님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부담감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EM실천의 하나의 동력은 가족이라는 점에서 EM실천가족회의 힘찬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14년 가족모임 '희망회'의 시작은 매우 바쁘게 진행되었다. 기관방문, 교육, 그리고 회의. 하지만 가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EM실천은 일할 기회와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지만 늘 부족한 것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다. 집이 있다고 해도 부모, 가족이 없다면 혼자서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용장애인들이기에 의미가 없다. 이에 독립주거훈련이 가능한 주거시설 투어는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가족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한 가족분들과 사정상 참석이 어려운 가족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
+
15



EM 2014 Summer Vol.1

2014년 여름 행복충전

2014년 여름 캠프
특히 이번 여름 캠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4년 여름 모든
행복충전 캠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청동의보감
한의학 박물관

무주 곤돌라 여행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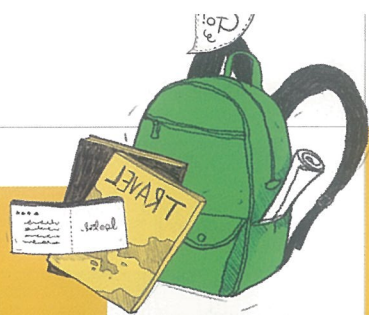
해오름예술촌,
독일마을

상주 은모래비치

14년째

행복충전 힐링캠프

글_ 사업지원팀 팀장 권장운



14년 여름캠프당자들의 2~3개월의 고민과 준비과정...
이번 여름캠프당 리더자 모임의 장애당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고
하는 과정중심의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14년 여름 모든 이들의 추억의 한 페이지에 기억될 여행이 되었길..
행복충전 힐링캠프가 되었길 기대해 본다.



항상 비와 굶은 날씨를 몰고 다녔던
EM실천의 여름캠프 올해는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화창한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가득 담고 출발했다.

무주 곤돌라 & 산청동의보감촌 가다

1. 첫째날 여행

남해를 가기전에 덕유산을 경유하여 조별로 리더자들의 인솔하에 맑은공기와 산에 정기를 받으며, 추억과 함께 덕유산의 발자취를 남겼다. 두 번째 코스로는 장시간의 버스 탑승을 통해 피로를 떨치기에 적합한 경남 산청에 동의보감촌과 한의학 박물관을 관람하며, 기체험으로 첫째날 힐링의 종지부를 찍었다. 첫째날 힐링코스를 마무리하고, 숙소인 남해에 도착하여 첫째날의 추억을 정리하였다.



2. 둘째날 여행



금산 보리암 & 다랭이논

둘째날을 본격적인 남해의 명소를 찾아 눈과 귀와 마음 그리고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남해 금산 보리암, 남해 다랭이논을 관람하며, 눈과 귀 마음을 힐링과 함께 체력증진(?)시켰다. 첫날과 둘째날 모두 도보로 이동하고, 경사길을 걷는과정에서 많은 자연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전의 다소 힘든 힐링의 과정을 마치고, 오후에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명랑운동회를 통해 이번 여름캠프의 조별활동으로 기간에서 회원들간의 교류가 없었던 회원들과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기관의 리더자들은 통솔력과 리더십 등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었던 역량과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되었다.

Summer Camp 여름캠프



은모래 해수욕장
레크리에이션



찾아 눈
시간을 가
남해 다령
링과 함께
모두 도보
많아 자신
리었다. 오
고, 오후에
병랑운동회
으로 기관
원들과 함
공과 더불어
더쉽 등의
행복을 충



해오름예술촌, 독일마을을 가다

3. 셋째날 여행

캠프의 마지막날이 드디어 밝았다. 캠프 2일간의 추억과 발자취를 정리하고, 마지막 발자취와 추억을 갖기 위해 해오름 예술촌, 독일마을을 관람을 통해 행복충전, 힐링된 모습을 예쁜 배경으로 가득한 해오름 예술촌, 독일마을 카메라 셔터속에 마음껏 몸을 맡기고, 3일간의 캠프를 카메라 마지막 셔터의 “찰칵소리”와 함께 마쳤다.



EM실천종사자 워크샵

2014년 5월 22일~23일

1박2일로 EM실천 종사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화합과 친밀감 형

등을 목표로 레포츠 체험과 조별 미션 수행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알찬 워크숍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part 01 3개의 미션을 클리어하라! EM 조별 미션!

미션 1 (도전, 희망, 성공, 변화)의 이엠실천 파이팅! 글자를 모아라!

미션 2 안면도 근처 사찰에서 대웅전이 보이게 조원 전체 단체사진 찍기.

미션 3 근처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 사오기.

1조 타이어가 펑! 타이어 교환하러 쾌적한 환경의 현대 정비소에서 잠시 휴식! 미션 1번만 클리어! ㅠㅠ

2조 미션 퍼펙트 클리어! 안면도 자연휴양림까지 사전답사. 바지락봉과 모시 조개봉을 휘 둘러 보고 해산물까지 사서 펜션으로! 5분 지각한건 NG!

3조 휴게소에서 5종의 음식을 먹은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잘 먹고 즐거운 미션수행! 우리도 미션 올 클리어인데 대웅전 사진에서 격한 논쟁이……

4조 누가 스타렉스를 무시하는개! 안면도까지 승승~ 문제없어요! 간월암과 안면암까지 다녀왔지만 사진에 대웅전 글자가 없어 NG. 살짝 아쉽게 미션 올 클리어! - 미션이라고 우려했던 수많은 수산시장 사장님! 우리 1등은 못했어요 ㅠㅠ





part 02 저녁 바비큐파티와 레크레이션

각 조별미션으로 사운 해산물까지 더해져 풍성한 저녁식사시간. 이진숙 실장님의 김치찌개와 숯불에서 구운 맛있는 고기, 새우 등으로 푸짐한 한 상 완성. 맛있는 저녁 뽕뽕하게 먹고 배도 식힐 겸 본격 레크레이션 시작.

후지 불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오래 버티기 게임은 정말 몸풀기 게임.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스피드 퀴즈, 초성 외치기, 건빵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기... 국장님, 실장님, 레크레이션 너무 힘들어요! 1등을 놓고 2조와 4조의 불꽃 튀는 대결. 원장님의 눈부신 활약 속에 레크레이션 1등은 2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part 03 역동적인 ATV 체험

4륜 오토바이 ATV를 타고 신악코스와 해안코스를 넘나드는 레포트 시간. ATV를 타고 비포장도로는 물론 자갈이나 모래밭, 작은 웅덩이나 둔덕, 언덕에 이르기 까지 가침없이 질주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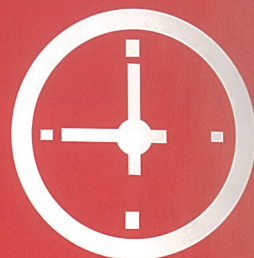
체험 도중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처음 타본 ATV는 워크숍 최고의 즐거운 추억.



part 04 힐링의 안면도 자연휴양림

마음의 힐링, 안면도 자연휴양림.

푸르른 나무속에서 일일 자연해설사 이원곤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망 좋은 정자까지 천천히 걸으며 업무와 걱정을 모두 놓고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잘생긴 소나무 앞에서 찰칵 사진도 찍고, 신기한 꽃나무 앞에서 감탄도 하고, 봄 꽃피는 때 왔으면 더욱 좋았을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아쉬운 마음으로 뒤로 한 채 이제 서울로!



일하는~ 행복

우편발송부,

조용철주임의
작업일지



조용철주임의 작업일지



AM 8:30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비비고 가산디지털역을 지나 아침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BM실천으로 출근을 한다. 재! 오늘은 어떤 일들이 우편발송팀을 기다리고 있을까?

AM 9:00

우편발송팀의 인원체크와 동시에 우리는 간단한 아침체조를 통해 스트레칭을 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연다. '헛들~, 헛들~'



AM 9:10

본격적인 작업지시사항을 담당 선생님께 듣고 작업을 진행한다.
흠. 오늘은 일이 많으니 열심히 해야겠군!

AM 10:30

오전 쉬는 시간. 바쁜 오전중의 일과 중 잠깐의 꿀맛 같은 휴식시간!

옥상에서의 담배 한 대와 여유로운 커피 한 모금!



동료들과 둘러앉아 오늘 작업이야기, 영화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쉬는 시간 끝! 오마이갓!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AM 11:00

우리 팀이 작업하기 위해 나는 봉투인쇄를 책임지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주임이기 때문이다! 봉투에 잉크가 묻어 나지 않도록 조심하~
봉투인쇄는 나 조용철 주임에게 맡기시라~

AM 12:00

와우! 즐거운 점심시간!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하자!

PM 1:00

활기차게 업무 시작!

점심을 먹고 나니 나른한 졸음이 몰려오지만 다시 힘내서 파이팅!

책이 입고 되었네! 하역장에 내려가서 책자를 수령하고, 담당선생님께 업무보고를 하자.

PM 3:00

오늘의 택배업무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안전하게 택배포장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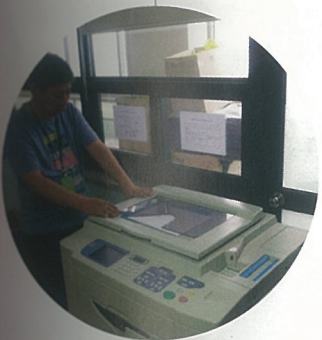
pm 5:30

오늘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담당 선생님께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작업장 청소를 합니다. 쓱쓱 쓱쓱!

pm 6:00

즐거운 퇴근 시간! 오늘 하루도 이상 無 !!!!

내일은 어떤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까. 일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하다^^



22
+
23

『솜씨자랑 '특급칭찬이야~'』

EM실천 가족들이여! 솜씨자랑을 하라!
언제까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만 있을 것인가!

마음껏 솜씨를 뽐내어보아라!

선정된 솜씨는 소식지와 함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으리니!

** 2분기 솜씨대상은 우편발송사업부의 장정임님과 최효선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지금은 생각
이 책의 많은
해고 그 상처
'우리를 짓
통해서 분노
어전히 좌절
아도 적지 않
가는 어려운
가는 길에 남
종류의 것은
으로 찢겨진
더 와 달는지
부딪치는 알
문제입니다.
할 사람은 만
그리고 원만
때문에 생가
것이다. 때론
수는 없는 것
한다면 우리
하는 것입니
아닐것입니
다른 사람과
모두에게 이



66 잃어버린 기술 용서 99

우편발송사업부 장정임

용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이 책을 접한 것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 교목이셨던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이다. 이 책의 많은 사례들은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하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가는지에 관해서 쓰여있다. '우리를 짓누르는 쓴 뿌리가 아무리 힘겹게 보일지라도 용서를 통해서 분노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맛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좌절 가운데 주저 앉아 도저히 안 될 일이라며 포기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용서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중 대다수가 용서로 가는 길에 넘어서야 했던 상처들은 누구나 흔히 겪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살인과 학대와 배반 그리고 전쟁으로 찢겨진 마음의 상처를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더 와 닿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부딪치는 일상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이 역시 똑같이 여겨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잔인한 범죄로 인한 아픔을 헤쳐 나가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험담이나 비판, 그리고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생기는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한사람이 복수심과 원한을 털어버리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용서의 능력을 신뢰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용서는 더는 결코 '잃어버린 기술'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요한 크리스토프아놀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이책을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한크리스토프아놀드지음/전병욱 옮김
출판사 : 실터

작은것들

우편발송사업부 최효선

작은물방울
작은모래알
그것이 크나큰 바다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

작은순간들
비록 그것이 하찮아도
마침내 영원이라고 하는
크나큰 시대를 만든다

작은잘못은
선행의길로부터
머나먼죄로 헤매이고
영혼을 인도한다

작은친절
작은 사랑의말
그것이 지구를 행복하게
천국처럼 만든다

-줄리아 카니

'최효선님의마음이 위안이 되는시'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에
비로소 큰 흐름을 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느낌이 좋은 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동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마음을 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

24
+
25

곽철 아프지 말고 건강해 선
 강하고 하는 일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요? 고등학교 동창생 보고싶다 이지영 정민
 고 막내동생아 힘내. 곽재민 없음 장진호 아버
 음 가져요 하지만 소박하게... 홍민성 어머니! 백
 이팅! 황찬희 나 하늘에서 사랑받는 내! 항상 진실의 힘으로 승리해 임영기 부모님 건강하세요! 사이판
 놀러갑니다 홍정기 엘름에 박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분발하세요. 참 행복하기를 빌어요 장정임 언
 니! 건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하며 살아 사랑해^^ 김정희 언니 돌보아주셔서 감사드
 려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돈많이 모아요 우리 조용철 형님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차금주 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손선애 몸 그만 아프고 돈
 많이 벌자 임영호 부모님 젊고 활기차게 사세요 친구야 보고싶다 이성우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김재우 어머니, 건강하시고 가족들 피곤하겠어
 요 폭주세요 그리고 회사일에 열심히 집중하게됩니다 명부선 엄마아빠 건강하
 시고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최효선 나의 동생 정윤아 사랑한다 항상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바란다 허재혁 동생에게, 애 낳
 으느라 수고했다 건강하렴 김혁수 종수야 형은 아직도
 너를 사랑해 김용일 엄마 오래 사세요 김인
 정 경민아 군생활 잘해라 엄마도
 회사 생활 잘할게

애야 조하란 가족모두 건
 박진희 ?? 김민석 부모님 건강하세
 아 건강하고 잘지내 신영권 어머니 건강하시
 지게 건강걱정 덜어드리자 박동진 큰 사랑의 마
 세시덴데 이백살까지 사세요. 박민정 이엠실천화
 임영기 부모님 건강하세요! 사이판

신간도서



제1부 발달장애 이해 및 이념적 접근

- 제1장 한국현실 속에서의 발달장애 김진우(덕성여자대학교)
- 제2장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서동명(동덕여자대학교)
- 제3장 발달장애와 정상화 이념 김용득(성공회대학교)
- 제4장 장애연구의 발달장애인의 배제와 참여 김진우(덕성여자대학교)

제2부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 제5장 정보제공과 의사소통 김진우(덕성여자대학교)
- 제6장 자기결정 이복실(한국장애인개발원)
- 제7장 자조와 자조집단 윤재영(삼육대학교)
- 제8장 권익옹호 이동석(성공회대학교)
- 제9장 학대와 보호 김미옥(전북대학교)
- 제10장 발달장애와 정신건강 이윤표(가톨릭대학교)
- 제11장 도전적 행동에의 대응 김고원(광운대학교)
- 제12장 발달장애인 정책과 서비스에서의 위험과 안전의 균형 이호선(성공회대학교)
- 제13장 발달장애인의 개별서비스 지원계획 김행련(소화이염클리닉)
- 제14장 직접자본제도와 개인예산제도 이승기(성신여자대학교)

제3부 생애 발달과정에서의 과제

- 제15장 가족지원 백은정(충신대학교)
- 제16장 거주공간 선택 이종남(극동대학교)
- 제17장 발달장애인의 성(性)과 부모되기 조윤화(한국장애인개발원)
- 제18장 발달장애인의 직업활동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 제19장 발달장애인의 노화 황규일(교남성광의집)

발달장애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론

김진우 편저

Spero, Spera!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대학에서 장애인복지론을 수강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발달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까?’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물론 사회복지 체계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빗차고, 장애인 정책 및 실천을 개괄적으로나마 자기 것으로 체화하기 바쁜데 개별 장애종별을 사회초년병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누가 발달장애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 와도, 선뜻 참고할만한 교재를 추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달장애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희망했다. 이 책이 그나마 척박한 땅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발달장애,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의료적인 접근, 심리정서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 특수교육적 접근, 서비스실천적 접근, 정책제도적 접근 등 그 방법에 따라, 이해하는 학문적 지형에 따라 각각 고유한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 책에서는 서비스 실천적 및 정책 제도적 접근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집필진의 대다수가 사회복지학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 책의 주된 독자를 사회서비스 실천현장에서 근무하거나 발달장애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나 아동기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성인기 이후의 발달단계를 다룬 것과 무관하지도 않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갈구하는 패러다임은 퇴색되어야 한다. 대신, 절망에 이르기 전에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바구니가 모아져야 한다. 사람냄새 나는 세상을 꿈꾸며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보편타당한 원칙과 룰이 적용되는 시대가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더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2014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분기 소식



26
+
27

법인 교육사업

신규직원교육 ... 지난 5월 14일(수) 오후 2시,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모뎀터에서 법인소속시설의 1년 미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직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로 진행되는 신규직원교육은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본 실무역량 강화, 사회복지 실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개 기관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용표 대표이사장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션에 대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윤선남 감사는 회계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교육, 박경수 이사는 복지 영역의 이슈와 과제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직원교육은 법인 소속시설 종사자들의 소속감 및 업무 이해 증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신규직원교육 이야기(說)

글_ 디자인2팀 정동숙

5월 14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하 한울)법인산하기관 하반기 입사자 대상 신규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7개월에 접어들어 약간 새삼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한울 법인의 역사를 배우고 장애인 복지현황 등 보건 복지 영역의 이슈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起) - 교육의 시작

카페온다 2호점의 달달한 카페라떼와 함께, 법인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용표 이사님의 한울 법인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인의 설립 전후 일련의 과정과 EM실천, 비전트레이닝센터 등 주요 산하기관의 창설에 대한 역사를 옛날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안히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한울 법인이 기타 종교, 개인재단법인과 달리 사회복지사들이 세운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승(承) - 교육의 전개

본격적인 교육으로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일 회계와 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간단하게나마 교육받아 실무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할 수 있어 유익하였습니다.

전(轉) - 교육의 절정

박경수 이사님의 '보건복지 영역의 이슈와 과제' 교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이나 관련 이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전의 직장과 달리 EM실천이라는 기관에 종사하면서 전문 업무 외에 장애인 복지영역의 이슈나 이론은 잘 몰랐습니다. 이 교육으로 장애인 복지에서의 정책 변화와 주요 이론을 배워 기본적 소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이라 시간이 부족하여 속사포처럼 내달린 교육이 아쉬울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結) - 교육의 끝맺음

교육의 끝은 맛있는 저녁!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맛있는 음식과 수다로 다른 산하기관의 신규 종사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내용과 각 기관의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법인과 우리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메뉴였던 오리고기가 매우 맛있었다는 후문!



2014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분기 소식

법인 교육사업

중간관리자교육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는 5월 20일, 27일, 6월 3일, 10일 매주 화요일 총 4회차에 걸쳐 소속시설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기획력 증진 및 실무성장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강사의 지도하에 총 8개기관에서 1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각자 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 계획서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중간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임시이사회

지난 5월 28일(수) 오후 5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용표, 이사 노명근, 이사 조흥식, 이사 장혜경, 이사 박경수, 이사 황운성, 이사 백은령 외 11개소 시설장들이 참여하여 소속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중간관리자 교육보고

글_ 사무국장 박미선



‘프로포절 작성,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극복하자’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총 4회기로 나뉘어 매주 화요일, 늦은 오후7시에서 9시까지 진행, 교육은 6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각 기관의 중간관리자 또는 프로포절작성에 대한 동기화가 필요한 산하시설 직원들이 모였다.

피곤한 몸으로 조금은 지친상태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집중하고 질문하고 고민한다. 나는 EM실천에 필요한 사업과 자원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양현모, 권장윤 두명의 팀장님과 나눠가며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했다. 우리의 고민주제는 “일하는 정신장애인의 미래설계 컨설팅”이며 부재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3가지 Keyword(일, 주거, 건강), step by step, plan! your story,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 등등의 논의가 있었다.

산하시설 참여자들도 각자의 시설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한울센터는 당사자의 회복과 관련해서,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체력단력실 보강을 위해서, 가평장애 복지 카페사업, 조은세상은 장비보강,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서비스종결자들을 위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등등의 고민의 결과, 아직은 미완성인 부분도 있었지만 매회기마다 강사님(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실장)의 심사위원다운 지적과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우리 모두는 이제 어렵기만한 프로포절 작성에 두려움을 극복했다.

본 교육은 중간관리자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중에 하나이나 쉽지 않은 부분인 듯하다. 2015년 EM실천의 프로젝트에 손을 들어줄 지원사업이 무엇일까, 매년 상반기 위와 같은 교육과정처럼 프로젝트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소식

기관견학

일 자 : 2014. 04. 30(수)

내 용 : 훈련생들의 사회적으로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생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서비스업종 체험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 소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내 카페 및 훈련공간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견학〉

부모간담회

일 자 : 2014. 05. 30(목)

내 용 : 훈련장애인들의 보호자들에게 작업장 안내 및 훈련생 개별훈련에 대한 상담을 위한 부모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호자 상호간에 정보교류와 부모회 조직등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 소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프로그램실



〈2014년 부모간담회 개최〉

작업 활동

볼 트 : 조립하기(수동, 전동)

쇼핑백 : 쇼핑백 접기, 끈 묶기 등



〈볼트 조립〉



〈쇼핑백 임가공작업〉

신규 훈련생 모집

1. 근무조건

근무시간 : 09:30 ~ 17:00, 월 ~ 금

급 여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2. 모집기간

충원시 까지(결원 발생 등 사유가 발생시)

3. 접수처

접수방법 : 직접 내방 (접수 및 면접 실시)

접 수 처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문의사항 : 02)897-9747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 조건

- (1) 금천구내 등록 장애인
- (2) 금천구내 등록 정신적 장애인(정신, 지적 장애)
- (3) 금천구내 등록 정신적 장애인중 취약계층
- (4) 근로동기가 명확한 장애인
- (5) 보호자의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자원봉사자 모집

1. 모집분야 : 근로장애인 작업 활동보조 외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

2. 활동장소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한내복지관 2층)

3. 활동시간 : 월 ~ 금 09:30 ~ 18:00 (시간 및 일정 조정 가능)

4. 활동내용 : 단순 임가공업(쇼핑백 접기, 매듭 묶기, 나사조립)

5. 혜 택 : 봉사시간 인정(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행 - VMS)

6. 문의사항 : 02)897-9747

후원금 및 후원물품 희망합니다.

1. 후원금은 훈련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등 활동비용으로 쓰입니다.
2. 후원물품은 작업활동용품, 피복, 생활용품 등 훈련장애인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물품 들을 주세요.



종사자 동정

득남소식

4월 19일 정일영(직업훈련교사) 직원이 건강한 첫째 아이를 득남하셨습니다.

※결혼은 작년 11월인데 벌써???

기타소식

박다영(직업훈련교사) 직원이 3개월 과정의 화훼장식기능사를 무사히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국가자격증도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회계교육

/ 2014. 4. 8, 10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급여, 세무, 종사자 관리 등 제반업무를 전자화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사회복지정보시스템교육을 통해 시설관리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화, 회계 투명성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천구자원봉사센터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교육

/ 2014. 4. 22

금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교육을 운영 지원실 양현모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365자원봉사수요처인 EM실천은 양성, 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1365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며,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장애인취업박람회

/ 2014. 4. 22

SETEC(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된 서울시장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직업적응훈련생 김혁수, 박민정, 허재혁님이 참여하여 이력서 작성 및 입사 면접도 보고 취업에 대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무료 커피 시음, 네일아트 등의 부대행사도 경험해보았습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공헌 협약식

/ 2014. 4. 16

금천구청 대회의실에서 '2014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공헌 협약식' 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기관·단체에 제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신규교육

/ 2014. 4. 24-25

하이서울영등포유스호스텔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신규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양일 간 전국에서 약 60명의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가 참여하여 직업재활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 담당자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통하여 서류 작성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상반기 사업보고서 대면심사

/ 2014. 4. 25

2014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작성에 따른 대면심사가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지원팀 고미나대리의 참석으로 진행된 대면심사에서는 EM실천 사업의 성장과, 사회적기업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향후의 계획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앞으로도 조금씩 발전해가는 EM실천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현장점검

/ 2014. 4. 29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권역 담당자인 장주연 선생님이 EM실천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었습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실을 더욱 높여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생산증명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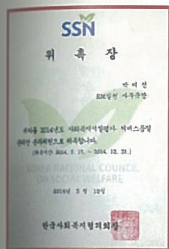
/ 2014. 4. 30

EM실천은 2014년 5월 인쇄, 현수막, 우편발송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재발급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자가 경쟁 입찰에서 낙찰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후 하청생산한 제품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M실천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 위촉

/ 2014. 5. 15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품질관리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위하여 박미선사무국장님이 품질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M실천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발달장애인복지론 북콘서트

/ 2014. 5. 30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재평가:지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과 누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M실천 역시 공동주최로 참여하게 되어 EM커뮤니티 출판물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론 감진우 대표저자의 출간기념 사인회 및 북콘서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의 A등급 시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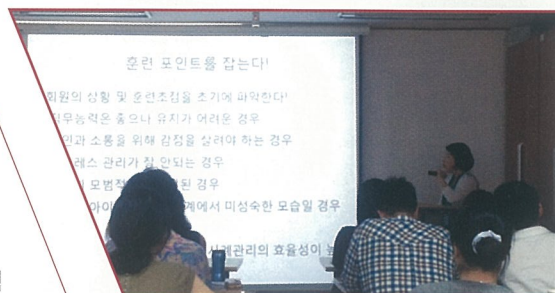
/ 2014. 5. 19

EM실천은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의 A등급 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직원능력개발 등 시설 운영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재활시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EM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HO직업재활포럼 '강점관점 실천기반을 통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 2014. 5. 29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 송파어우리기에서 주관한 직업재활포럼에 운영지원팀 고미나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점기반 실천을 통한 직무지도와 직업재활의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강점관점에 기반한 직무지도와 취업연계에 있어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포럼에 EM실천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나눔을 통한 희망실천

자원봉사자 모집

EM실천은 자원봉사를 통해 근로정신장애인, 종사자와 함께
소통하실 자원봉사 가족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거나 혹은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참여를 기다립니다.

34
+
35

1. 소통 분야(모집분야)

소통① 교육 분야(한자, 한글,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소통② 직업 분야(컴퓨터교육, 직무지도 등)

소통③ 여가 분야(사진촬영, 볼링, 등산 등)

소통④ 함께 일하며 근로 장애인과 동행 해 주실 분

2. 활동시간 : 평일 9:00~18:00(시간 및 일정 조정 가능)

3.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행(VMS, 1365)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연락처 : 02-875-9744 / 070-7825-8945

(사업지원팀 대리 박수현)

홈페이지 : www.em21c.com

E-Mail : em21c@hanmail.net

후원자 모집

■ 직접후원

후원계좌 (예금주 : EM실천)

하나은행 577-910004-99104

농협 301-0104-7345-41

Thank you...

■ 2분기 자원봉사자 명단

[VMS]

- 4/5 국민은행 가산테크노지점
신명식, 송홍진, 성윤아, 김은식, 이병현
- 6/5 김지훈
- 6/9 임홍진
- 6/10,12,13 이백구

[1365시스템]

- 5/2 최종예, 지혜성
- 5/7 이소희, 박준태, 한용택
- 6/2,3,5 김채원
- 6/3 정현호
- 6/5 조영경

■ 물품후원

6/3 서울관악우체국, 생필품 후원

■ 정기후원

송혜라, 한지영, 이병현, 정준호, 이효상, 김정희, 권기국

느 감사합니다

Thank you~!

EM실천에 바란다

EM실천에 격려의 한마디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분기 동안 EM실천의 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시고,

EM실천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M실천의 또 다른 후원자이신 인쇄/복사, 현수막, 우편발송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M실천에 대한 고객 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안정 및 사회통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M실천의 관심을 통해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고객여러분들의 주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우편발송사업 고객명단

김재훈	김지원	김지원
김지혜	김하정	김혜진
김희성	문신희	박수진
박정훈	박창훈	박해정
심지영	양순녀	위은주
이문정	이은주	이진숙
이춘조	이희연	임정웅
임천경	장숙희	장인후
장 진	장한별	장호식
정수인	정주영	정준기
최수동	황문실	황정호

인쇄/복사 고객명단

강동협	강준성	강태섭
강희영	고건일	고영일
고은진	곽충근	구경민
권미숙	권영애	김건우
김경덕	김남희	김대연
김두규	김미경	김서윤
김선영	김성남	김세영
김수영	김승민	김승환
김애숙	김영주	김원대
김은옥	김은희	김종태
김지선	김지훈	김진우

김해미	김효진	나종민
남궁선애	류정은	민달래
박금자	박미정	박 용
박윤숙	박인숙	박진우
박현주	박호선	방명희
서명희	서병민	서유태
서재호	성수원	성지선
성현숙	성혜연	손병덕
송 숙	송진주	송창수
송형선	신성미	안지만
양미정	양서리	양희준
엄영수	엄지희	엄혜정
엄지훈	오영주	원동섭
원재식	유경희	유현정
윤신정	이건성	이겨레
이미영	이미옥	이보미
이보오미	이보옥	이상준
이상혁	이세진	이수인
이승범	이용표	이유미
이윤정	이은석	이은희
이인규	이종남	이지선
이지혜	이춘조	임천경
장정은	장 혜	전가연
전일새	정동현	정두영

정종섭	정준모	조미라
조민진	조성익	조수진
조아라	조영옥	조윤준
조은아	조혜연	천소현
최대경	최덕수	최민아
최은숙	최창순	최현진
하성진	함영웅	하은희
홍은주	황규진	황성동

현수막 고객명단

강미자	강정규	고건일
고영일	공광복	구경민
권미숙	권수민	권오태
김건우	김광돈	김광희
김대연	김도희	김미성
김병철	김봉현	김상진
김선영	김선조	김성훈
김소영	김슬기	김신태
김영은	김영은	김원대
김유영	김유정	김은영
김은영	김인식	김재영
김정선	김정은	김종현
김지은	김철호	김태형
김현정	김화정	김효진
나도철	라현운	류정은

박광주	박미정	박상민
박성문	박수미	박순희
박용민	박제현	백은주
백정민	서병민	성건모
손미현	송현주	신동훈
신미영	신연화	신희원
안장욱	안정권	양지희
연웅모	오도선	오지연
유승배	유인빈	유진선
유태영	윤용현	윤정희
윤형미	이겨레	이경희
이나영	이상타	이승환
이양선	이유영	이인규
이현경	이현자	이혜진
임지형	임천경	임현주
장영태	장정은	전일새
전혜진	전홍룡	정나리
정동호	정성학	정유금
정은주	조성일	조영옥
조준홍	조형성	진나리
차우승	천나래	최원석
최윤호	최주혜	최호진
추민정	한상원	홍민영

혹시라도 상단의 고객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EM실천으로 연락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서울관악우체국 사서함 60호

151-600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ISO 9001

“변화와 도약의”
EM **일천**
Empowerment Society